

“수신료의 가치, 감동으로 전합니다”

# BEYOND TIME AND SPACE

시간의 경계를 넘어

KBS교향악단 제792회 정기연주회

지휘 | 크리스티안 라이프 Christian Reif  
피아노 | 알리스 사라 오토 Alice Sara Ott

주최/주관 KBS 교향악단

후원 KDB산업은행 | 더클래스효성

2023.07.14. (FRI) 20:00 롯데콘서트홀

BEYOND TIME AND SPACE  
PROGRAM

베토벤 | 레오노레 서곡 제3번 C장조, 작품72b 🕒 14'  
L. v. Beethoven | Leonore Overture No.3 in C Major, Op.72b

베토벤 | 피아노 협주곡 제3번 c단조, 작품37 🕒 34'  
L. v. Beethoven | Piano Concerto No.3 in c minor, Op.37

1악장 빠르고 힘차게 (16')  
Allegro con brio

2악장 느리게 (9')  
Largo

3악장 론도; 빠르게 (9')  
Rondo; Allegro

인터미션 Intermission 🕒 15'

슈트라우스 | 차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작품30 🕒 33'  
R. Strauss | Also sprach Zarathustra, Op.30

1. 일출 Einleitung, oder Sonnenaufgang
2. 저편의 세계를 믿는 사람들에 대하여 Von den Hinterweltlern
3. 위대한 동경에 대하여 Von der großen Sehnsucht
4. 환희와 정열에 대하여 Von den Freuden und Leidenschaften
5. 무덤의 노래 Das Grablied
6. 학문에 대하여 Von der Wissenschaft
7. 치유되어 가는 자 Der Genesende
8. 춤곡 Das Tanzlied
9. 밤 산책자의 노래 Nachtwandlerlied

# CHRISTIAN REIF CONDUCTOR

## 지휘 | 크리스티안 라이프

**“놀라운 재능과 위상을 겸비한 지휘자, 상당히 중요한 음악가”**

- <샌프란시스코 크로니클>지

잘츠부르크 모차르테움과 뉴욕 줄리아드 음악학교에서 지휘를 공부한 크리스티안 라이프는 타고난 음악성, 혁신적인 프로그램 구성, 그리고 테크니컬한 지휘 실력으로 정평이 나 있다. 매년 여름 미네소타에서 열리는 Lakes Area 음악 페스티벌의 음악감독을 맡아 오페라부터 실내악, 교향악 공연에 이르기까지 다채롭고 신선한 프로그램을 선보이고 있다.

2022/23 시즌에는 베를린 도이치 교향악단, 뮌헨 방송교향악단, 네덜란드 방송교향악단, SWR 교향악단, 예블레 교향악단, 인디애나폴리스 교향악단, 볼티모어 교향악단, 콜로라도 심포니, 루이빌 오케스트라, 뮌헨 교향악단, 왕립 스코틀랜드 국립 관현악단, 할레 오케스트라 등을 지휘했으며 지난 12월, 직접 편곡한 존 애덤스의 <엘 니뇨>로아메리칸 모던 오페라단과 뉴욕 성 요한 대성당에서 공연을 펼치기도 하였다. 2023년 여름에는 에네스쿠 페스티벌, 그랜드 티턴 뮤직 페스티벌에서 활약할 예정이며, 인터라켄에서 월드 유스 심포니 오케스트라를 지휘한다. 오페라 지휘자로도 활발히 활동 중인 그는 줄리아드 오페라와 <원저의 즐거운 아낙네들>, 레온카발로의 <팔리아치>, Lakes Area 뮤직 페스티벌에서 리하르트 슈트라우스의 <낙소스 섬의 아리아드네> 등을 지휘한 바 있다.

2020년 팬데믹 기간에는 아내인 성악가 줄리아 블록과 자택에서 함께 한 온라인 콘서트를 통해 캐롤 킹의 <지붕 위에서>부터 슈베르트의 <방랑자의 밤 노래>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레퍼토리를 선보였다. 2020년 11월에는 NPR Music 채널에서 팬데믹 기간 특집 프로그램으로 부부 듀엣의 “책상 앞 콘서트”를 방송하였다. 이를 두고 NPR의 톰 휘젠가는 “올해 경험한 가장 특별한 음악적 순간”이라고 극찬하였으며, 뉴욕 타임스가 선정한 “2020년 최고의 클래식 음악”에 선정되기도 하였다.

2014년부터 2016년까지 뉴 월드 심포니, 2015년부터 2016년까지 탱글우드 뮤직 센터의 펠로우 지휘자를 역임했으며, 2016년부터 2019년까지는 샌프란시스코 심포니의 상주지휘자이자 샌프란시스코 심포니 유스 오케스트라의 음악감독을 역임하였다.







# ALICE SARA OTT PIANIST

## 피아노 | 알리스 사라 오토

클래식 음악계에서 독보적인 창의력을 자랑하는 알리스 사라 오토는 구스타보 두다멜, 파블로 헤라스 카사도, 산투-마티아스 루발리, 에드워드 가드너, 파보 예르비, 안토니오 파파노 경, 지아난드레아 노세다, 안드레스 오로스코 에스트라다, 프랑수아 틀뢰, 유리 테미르카노프, 블라디미르 아슈케나지, 사카리 오라모, 오스모 벤스케, 정명훈, 로빈 티치아티 등 최정상급 지휘자들과 호흡을 맞춰왔다. 베를린 필하모닉, LA 필하모닉, 런던 심포니 오케스트라, 예테보리 교향악단, 카메라타 잘츠부르크, 뮌헨 필하모닉, 베르겐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시카고 심포니 오케스트라, 빈 심포니 등과도 꾸준히 한 무대에 오르고 있다.

도이치 그라모폰에서 열 번째로 발매한 앨범인 <Echoes of Life> (2021)는 그녀의 삶에 대한 음악적 반영이 잘 드러난 앨범으로, 쇼팽의 전주곡 Op.28을 주축으로 하여 죄르지 리게티, 니노 로타, 칠리 곤잘레스, 토루 타케미츠, 아르보 파트트, 프란체스코 트리스타노의 곡과 오토의 자작곡까지 총 여덟 곡이 수록되어 있다. 앨범의 디지털 비디오회를 통한 가상 세계 리사이틀을 통해 실제 공연의 분위기를 완벽하게 느낄 수 있는 경험을 선사하기도 하였다. 이 프로젝트는 2021년 11월 런던 사우스뱅크에서 초연한 이후 파리 라 센느 뮤지컬, 뮌헨 프린츠레겐텐 극장, 루체른 KKL, 뮌헨 부다페스트, 벨기에 드 싱켈, 루르 피아노 페스티벌과 2022년 일본 투어에서도 선보였다. 이 앨범은 기존 발매했던 <Nightfall>, <Wonderland>, <The Chopin Project>의 계보를 잇는 시리즈로, 이로써 발매한 앨범의 총 스트리밍 횟수가 1억 5천을 돌파하는 기염을 토하였다.

일러스트레이터와 디자이너로서도 활약 중인 그녀는 독일의 프리미엄 패션 브랜드인 JOST의 시그니처 라인의 다양한 가방을 디자인하였고, 테크닉스의 글로벌 브랜드 앰배서더로서도 활약하고 있다. 그 밖에도 프랑스 LVMH 그룹의 럭셔리 주얼리 브랜드 쇼메, 독일 럭셔리 주얼리 브랜드 뱀페와 다양한 협업을 펼치고 있다.

## 베토벤 | 레오노레 서곡 제3번 C장조, 작품72b

L. v. Beethoven | Leonore Overture No.3 in C Major, Op.72b

작곡연도	1805-1806년
초연	1806년 3월 29일, 오스트리아 빈
편성	플루트2, 오보에2, 클라리넷2, 바순2, 호른4, 트럼펫2, 트롬본3, 팀파니, 현5부 (오프스테이지) 트럼펫
연주시간	약 14분

루트비히 판 베토벤(1770-1827)의 <피델리오>는 그의 유일한 오페라다. 베토벤은 당대 유행하던 로시니 풍의 오페라 부파\*를 무의미한 하룻밤의 여흥으로 여겼다. 그는 인간의 미덕을 보다 진지하게 다루길 원했고, 특히 그의 개인적 소망이기도 했던 ‘부부간의 진실한 사랑’을 작품의 주제로 택했다. 요제프 존라이트너가 장 니콜라스 부이의 프랑스어 원작을 바탕으로 독일어 대본을 썼는데, 이 3막짜리 초판본의 제목은 여주인공의 이름을 따서 <레오노레>였다. 그러나 1805년의 초연 이듬해인 1806년 베토벤은 작품을 2막으로 축소했고, 이후 전면적인 개정을 거쳐 다시 작품을 무대에 올린 1814년에는 오페라의 이름을 <피델리오>로 바꿨다. 1805년의 초연(서곡 제2번), 1806년의 개정판(서곡 제3번), 1814년의 최종판(피델리오 서곡)을 올릴 때마다 새로운 서곡을 하나씩 썼고, 1808년 프라하 공연을 위해서도 또 하나의 곡(서곡 제1번)을 써서 이 오페라에는 모두 네 개의 서곡이 존재하게 되었다.

\*오페라 부파  
(Opera buffa):  
오페라 장르의 하나로,  
이탈리아의 희극을  
일컫는다.

여주인공 레오노레는 정적에 의해 죄 없이 옥에 갇힌 남편 플로레스탄을 구하기 위해 남장을 하고 피델리오라는 가명을 쓰기로 한다. 간수 로코에게 접근해 일자리를 얻은 레오노레는 자신의 결단을 다음과 같은 아리아로 부른다.

오라, 희망이여, 피곤한 나의  
마지막 별빛이 창백해지지 않도록!  
오 와서 내 갈 곳을 비춰다오, 아무리 멀더라도  
사랑이, 사랑이 거기 다다를 테니  
내 마음이 이끄는 대로 따라가  
흔들리지 않으리  
신실한 부부의 사랑  
그 의무가 나를 강하게 하리라!

고귀하고도 강인한 여인 레오노레, 곧 피델리오는 남편이 살해의 위협을 받는 순간 “그이를 죽이려거든 그의 아내부터 죽여라!”라고 외치며 자신의 정체를 드러낸다. 간수장은 그 둘 모두를 제거하려 하지만, 때마침 법무장관이 행차하면서 상황은 일단락된다. 어려움을 이겨낸 신실한 부부는 결국 행복을 맞이한다. 레오노레는 어쩌면 베토벤의 이상형이었을까. 레오노레는 영웅적 여인의 전형이다. 불같은 시험을 통과한 극복의 줄거리는 이처럼 베토벤의 음악 전반을 수놓고 있다.

이번 공연에서 연주되는 레오노레 서곡 제3번은 앞에 언급한 네 곡의 서곡 가운데 가장 강렬하고 압도적이다. 사랑과 시련, 극복의 이야기를 실감 나게 전달하는 걸작이지만, 오히려 그 뛰어난 표현력 때문에 관객들이 오페라 자체에 몰입하는 데는 오히려 방해되었다. 따라서 오늘날에는 피델리오 서곡을 오페라 시작 전에 연주하고, 구스타프 말러의 선례에 따라 이 서곡을 2막 2장 시작 전에 연주하는 경우가 많다.

## 베토벤 | 피아노 협주곡 제3번 c단조, 작품37

L. v. Beethoven | Piano Concerto No.3 in c minor, Op.37

작곡연도	1800년
초 연	1803년 4월 5일, 오스트리아 빈
편 성	플루트2, 오보에2, 클라리넷2, 바순2, 호른2, 트럼펫2, 팀파니, 현5부
연주시간	약 34분

앞집이 창창한 젊은 피아니스트 겸 작곡가에게 귓병이 찾아왔다. 이제는 너무나 유명해져서 상상하게까지 들리는 이 사건은 개인의 불행을 넘어 음악사를 바꾸어 놓았다. 이제 막 스타덤에 오르기 시작한 베토벤은 갑작스러운 운명 앞에 자살까지 생각했다. 그러나 곧 하일리겐슈타트에서 칩거하면서 자신의 미래를 가늠해보았다. 그가 내린 결론은 이것이었다. “내가 내 손으로 내 삶을 끝내는 데 별로 모자란 것은 없어 보였지만 - 오직 예술, 그가 나를 다시 붙들어 주었다. 아, 내게 두근거림을 느끼게 해준 이 모든 것을 이루기 전에 세상을 뜬다는 건 내게 불가능해 보인다. 그래서 나는 이 비참한 삶의 기한을 연장하기로 했다.” 또한 그는 다시 이렇게 덧붙인다. “겨우 스물여덟의 나이에 철학자 되기를 강요당하다니.” 귓병은 음악가 베토벤의 반쪽을 앗아갔다. 연주자 베토벤은 서서히 사라져갈 정체성이었다. 그러나 잃어버린 그의 반쪽은 여전히 남은 반쪽을 강화해주었다. 이 같은 상실이 곧 베토벤을 음악의 철학자로 만든 것이었다.

베토벤은 여전히 피아노 독주자로 활약하고 있었다. 이미 발표한 두 편의 피아노 협주곡 제1번과 제2번은 건반 상의 기교와 피아노포르테 특유의 역동성을 고전적 협주곡 양식에 걸맞게 활용해 보자는 ‘피아니스트’ 베토벤의 야심을 반영하고 있었다. 그러나 하일리겐슈타트의 유서 이후 그의 작품 전반에는 내면적 지향이 생겨나기 시작했다. 외향적 효과나 기교보다는 하나의 의미를 향하는 새로운 협주곡, 곧 교향곡과 필적하는 협주곡이 탄생하기 시작했다. 이에 대해 E. T. A. 호프만은 1810년의 유명한 논문 “베토벤의 기악 음악”에서 이렇게 적었다.



나는 원래의 피아노 협주곡 모두에 대해 반감을 갖고 있다. (모차르트와 베토벤의 피아노 협주곡들은 사실상 오블리가토\* 피아노가 편성된 교향곡이다) 그런 협주곡에서는 개별 연주자가 자신의 기교로 악구나 선율의 표현을 가지 있게 들리도록 해야 한다. 그래서 최고의 연주자가 최상의 악기로, 이를테면 바이올리니스트가 조금만 애쓰면 얻어낼 수 있는 효과를 흉내 내느라 쓸데없이 공을 들인다.

\*오블리가토 (Obligato): 연주에서 생략할 수 없는 악기나 성부

이때, 모든 솔로 부분은 바이올린과 관악기의 총주 뒤에 뻗뻗하고 축 처지게 들려서 정서가 제대로 표현되지 않는데도, 사람들은 그저 손가락이 잘 돌아가거나 그런 비슷한 것에 열광한다. 그러나 이 거장은 피아노라는 악기의 본질적인 정신을 얼마나 잘 이해하였는가. 또 피아노에 얼마나 알맞은 방식으로 작품을 만들었는가!

베토벤 피아노 협주곡 제3번은 협주곡 장르에서 베토벤이 자신의 개성을 완연히 펼쳐 보인 첫 번째 작품이다. 베토벤의 유일한 단조 협주곡인 이 작품은 물론 모차르트의 단조 피아노 협주곡인 제20번과 제24번의 영향을 받았으나 이미 독자적인 교향적 협주곡의 전형을 드러낸다.

곡은 관현악의 주제 제시로 시작된다. 1악장 알레그로 콘 브리오의 엄숙한 제1주제는 교향곡 제5번의 조성(다단조)과 같은 다단조이고, 클라리넷과 바이올린이 도입하는 제2주제는 확연히 밝은 내림마장조다. 움직임에 있어서도 두 주제는 상반된다. 제2주제의 말미는 길게 확장되어 있고 다시 원조 다단조로 회귀한 뒤 카논 풍의 종결부에서 정리된다. 두 번째 제시부가 피아노에 의해 제시된 뒤 이어지는 발전부에서 베토벤은 부점(附點) 리듬을 반복적으로 배열해 리듬적인 추동력을 끌어내고 주제의 앞쪽을 분절하여 밀도 있게 조합한다. 간명하지만 강렬한 긴장감을 머금은 이러한 악구의 사용은 곧 베토벤의 트레이드마크로 자리 잡는다.

제2악장 라르고는 높은 수준의 내적 긴장감, 느린 악장의 단순성을 의미심장하게 표현한 뛰어난 악장이다. 기본 정조는 같은 시기에 나온 교향곡 제2번의 느린 악장처럼 경건하다. 이러한 내적 침잠의 분위기는 원조성(다단조)과 멀리 떨어진 조성(통상적인 내림마장조가 아닌 마장조)으로 인해 더 부각된다. 바순, 플루트 등 목관악기의 색채감이 두드러지는 관현악 파트도 노래하는 성격으로 이 '내면의 풍경'에 진정성을 부여한다.

한편 제3악장은 선형 악장들을 회상하는 론도이면서 관현악과 독주부의 긴밀한 결합이 인상적이다. 베토벤의 마지막 악장은 과거의 협주곡과 같이 그저 청중의 긴장감을 풀어주려는 유희곡의 수준을 훌쩍 뛰어넘는다. 터키풀 주제는 어둡지만 에너지가 넘치고 내림마장조의 가운데 부분은 상냥하고 다정하여 대조 효과와 연결성을 동시에 가진다. 주제의 머리 부분을 밀도 있게 엮는 푸가토나 재현부에서 종곡으로 치닫는 활달한 코다(프레스토)는 기교 이상의 역동, 고난을 넘어 서려는 긍정의 선언을 담고 있다.



유튜브 채널 바로가기

## 오늘 공연에 대한 연주자의 생각이 궁금하세요?

KBS교향악단 유튜브 채널에서 지휘자와 협연자가 직접 전하는 쉽고 재미있는 해설 영상을 만나보세요!

#구독 #좋아요 #알림설정 

## 슈트라우스 | 차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작품30

R. Strauss | Also sprach Zarathustra, Op.30

작곡연도	1896년
초연	1896년 11월 27일, 독일 프랑크푸르트
편성	플루트3(제3주자는 피콜로 겸함), 피콜로, 오보에3, 잉글리시 호른, 클라리넷2, E♭ 클라리넷, 베이스 클라리넷, 바순3, 콘트라바순, 호른6, 트럼펫4, 트롬본3, 튜바2, 팀파니, 글로켄슈필, 트라이앵글, 심벌즈, 큰북, 서스펜디드 심벌, 차임, 하프2, 오르간, 현5부
연주시간	약 33분

리스트가 창시하고 베를리오즈, 프랑크, 생상스 등이 이어온 ‘교향시’란 교향곡의 형식을 벗어 버리고 문학 작품이 촉발한 영감을 자유 형식에 담아내는 것을 목표로 하는 장르였다. 이들이 보기에 소나타 형식, 노래 및 춤곡 악장, 피날레 등 교향곡의 4악장제 구성은 이미 낡은 ‘역사적 관습’에 불과했다. 이미 베토벤이 교향곡 제9번 <합창> 등 그의 후기 음악을 통해 절대음악의 신념이나 고전적 형식을 버리고 환희와 인류애라는 보다 높은 ‘의미’를 취했다고 보았기 때문이었다.

오늘날 리하르트 슈트라우스(1864-1949)는 신독일악파의 양대 주력 장르인 교향시와 악곡의 계승자요, 낭만주의 최후의 대가로 불리지만, 사실 커리어 초기에는 보다 전통적인 장르인 교향곡, 실내악에서 성공하고자 했다. 독일 뮌헨은 “이자르 강변의 아테네”를 표방하는 비교적 보수적인 기풍의 도시였고 궁정 오케스트라의 호른 주자였던 슈트라우스의 아버지 또한 브람스 음악에 경도되어 있는 음악가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초기의 교향곡 두 편, 클라리넷 및 첼로를 위한 관현악 악장 등을 쓴 뒤 그는 깨달았다. 절대음악의 방식으로는 새로움을 만들어내기 어려우며, 적어도 자신은 그런 접근과 어울리지 않는다는 사실을 말이다.

니체의 저작 <차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는 철학서이기 이전에 그 자체가 한 편의 음악이라 할 만큼 아름다운 언어예술작품이다. 그러나 이 아름다운 언어 속에는 날카로운 현실 비판도 들어 있다. 부르주아적인 탐닉이나 속물주의, 게으른 종교적 무사안일함에 대한 신랄한 조롱은 오히려 더 높은 이상을 향하겠다는 의지와 통한다. 곧 중력의 영을 거스르고 현상 유지의 유혹에 저항하며 언제나 자기 자신을 초극하려는 초인(Übermensch)의 정신이 그것이다. 이것은 단순히 어려움을 극복하는 것과는 다르다. 오히려 세상에 소위 좋다는 여러 가지 종교, 미덕, 질서, 권위 따위의 것들로 인간을 고정해두고 인간다운 사유의 자유를 잃어버리게 하는 모든 구속을 벗어던지겠다는 의미다. 이 때문에 니체는 중력의 지배를 영속화하는 국가나 학문 체계를 조롱하고, 이로부터 벗어나는 움직임을 긍정하여 이성이 지배하는 낮 대신 무한한 밤의 신비를 찬미한다.

슈트라우스는 니체가 말하고자 하는 바를 이해했다. 그는 작품의 다양한 에피소드 가운데 여덟 장면을 고르고 여기에 ‘일출’ 장면이라 불리는 서주를 덧붙여 장장 반 시간 분량의 장대한 교향시를 완성했다. <차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의 서주는 음악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서주라는 찬사를 얻을 정도로 그 효과가 뛰어나다. 우선 처음 들려오는 c'-g-c"의 C장조의 모티프는 흔히 ‘자연의 모티프’라 불린다. 아무 조표도 붙지 않는 C장조는 순수와 시작을 표상한다. 그런데 이 모티프 자체에는 연속된 도약도 들어 있다. “자기 스스로를 넘어서라. 모두가 자신의 초인이 되어라. 익숙한 데 안주하지 마라. 보이지 않는 세계는 보이는 세계보다 깊다.”라는 차라투스트라의 가르침에 따라 슈트라우스도 어둠과 가라앉음에 저항하는 도약과 상승을 그리되, 이제 다 도달했다고 느껴지는 바로 그 지점에서 멈추지 않고, 한 단계 위로 더 나아간다. 자기를 넘어

서는 초인이야말로 장엄한 일출이 보여주는 찬란한 자연에 상응하는 인간의 본질이라는 것이다. 니체 저작의 본뜻을 이처럼 간명하고도 인상적으로 옮겨낼 수 있을까. 그러므로 이 서주는 하나의 이상향이다.

이어지는 에피소드들은 이상보다는 요지경 세상을 방랑하는 차라투스트라의 모습을 그린다. 첫 번째 에피소드 ‘저편의 세계를 믿는 사람들에 대하여’는 중세의 평성가\* “나는 믿습니다 (Credo)”를 인용한다. 긴 지속음 위에 달콤하고 낭만적인 선율이 펼쳐지지만 상행하려는 의지가 없는 멜랑콜리한 상태에 머물러 맹목적 신앙에 대한 비판을 나타낸다. 두 번째 에피소드 ‘위대한 동경에 대하여’에서는 솟아오르는 상행의 동기가 나타나 새로운 삶을 향한 열망이 모습을 드러낸다. 곧바로 이어지는 세 번째 에피소드 ‘환희와 열정에 대하여’는 보다 걱정적인 열망이 관현악의 총주로 표현된다. 그러나 이 열정의 모티프는 여전히 어둡고 무거운 단란조이며 반음계가 자주 활용되어 불안과 의심의 그늘을 드리운다. 네 번째 에피소드 ‘무덤의 노래’에 이르면 강렬했던 합주가 일순간 흩어지고 오보에, 바순, 바이올린 등의 탄식 소리가 마치 ‘구천을 떠돌 듯이’ 들려온다. 반음계 하강의 선율 가락이 반복되고 겹쳐지면서 신비로운 효과를 내지만 동시에 무상감이 드는 악상이다. 다섯 번째 에피소드인 ‘학문에 대하여’에서는 현학적인 푸가로 자연의 본질을 잡아내지 못하는 인간적 노력의 덧없음을 그려낸다. 특히 이 곡에서는 인간을 나타내는 B장조와 자연의 C장조 - 이 둘은 가장 거리가 먼 조성이다 - 가 서로 충돌하며 공존하여 날선 긴장감을 만들어낸다.

\*평성가(平聖歌) : 중세 기독교에서 반주 없이 부르던 단선율의 종교음악

작품의 2부를 이루는 세 에피소드에서는 앞서 제시된 인간(B장조)과 자연(C장조)의 부조화가 더 증폭된다. ‘치유되어 가는 자’에서는 이 두 모티프가 긴장감 있는 대위법적 구성으로 엮이다가 다시 장엄한 자연의 모티프가 현현하여 ‘치유’를 나타낸다. 이어지는 일곱 번째 에피소드 ‘춤곡’은 B장조로 연주되던 춤 모티프가 반음 상승하여 자연의 조성 C장조로 옮겨온 것을 알 수 있다. 인간과 자연의 합일, 환희와 도취가 춤에서 완성된 것이다. 그러나 슈트라우스는 마지막 에피소드 ‘밤 산책자의 노래’에서 다시 B장조와 C장조를 병치시킨다. 음악은 평온한 안식에 드는 것처럼 마무리되지만 여전히 세상에는 불안이 남아 있다는 것이다. 인간과 자연의 합일은 오로지 춤이라는 일시적 순간에만 가능하다는 것일까? 그러나 비록 인간과 자연이 영원한 긴장 관계에 놓여 있더라도 B장조에서 C장조로 올라서려는 의지가 있다면, 그것이 곧 인간을 인간답게 한다. 초인이란 곧 이 반음을 올라서려는 생명력, 꿈의 다른 이름일 것이다.

글 | 나성인(음악평론가/칼럼니스트)

## 인스타그램 리뷰 이벤트

@KBSSymphonyOrchestra



공연 관람 후 #KBS교향악단 해시태그와 함께 인스타그램에 후기를 남겨주세요. 추첨을 통해 지휘자 & 협연자의 사인이 담긴 프로그램을 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KBS교향악단 인스타그램을 확인해 주세요!

제791회 정기연주회 ‘소리의 풍경화’

요엘 레비가 펼쳐낸 스트라빈스키의 환상, 원시적 색채로 중무장한 마스터피스 ‘불새’는 디테일에서 오싹함을, 거침없이 터지는 대규모 교향악의 사운드에서 청량감을 건넸다. 이날 공연의 악장으로 분한 데이비드 쿠세론은 악단의 선두에서 레비의 예민하고도 까다로운 요구에 민첩하게 반응하며 음의 향연을 펼쳤다. 단원들의 투혼이 곳곳에서 빛나는 공연이었는데 그도 그럴 것이 2014년 악단의 음악감독으로 부임, 초청연주 형식으로 만난 인연부터 계산하면 10년을 족히 채우는 세월 동안 레비와 악단이 쌓은 금자탑이 최고의 불꽃을 만들어낸 무대가 이날의 무대가 아닐까 싶다. 이를테면 ‘마왕 카세이 무리들의 지옥의 춤’에서는 3/4박자 a단조의 강렬한 화음 뒤 팀파니스트와 더블베이스군의 리듬에 실린 싱코페이션 일색의 주제가 바순과 호른을 통해 전개되는데, 그로테스크한 현악기의 일사분란함에 이들 각 파트가 유기적으로 얽히며 이야기에 심취하게 했다. 약음기를 장착한 첼로와 더블베이스의 행적은 을씨년스런 깊은 밤을 표현하기에 부족함이 없었고, 현악 주자들이 뽑아내는 하모닉스와 글리산도는 무대를 통해 전이되는 울림이 아니고서는 어떤 오디오로도 재현 불가능하다. 이반에게서 도망치려는 불새의 필사의 노력을 어필하는 클라리넷 수석의 재치는 또 얼마나 사실적이던가. 최면에 걸려 춤사위를 벌이는 괴물들을 표현하려 팡팡 터지는 금관은 말할 것 없다. 포르테에 포르테를 더해 대포처럼 터지는 소리의 군무에 레비의 왼손은 하염없이 반짝이고 있었다.

기돈 크레머는 한국의 오케스트라와의 첫 협연 무대에서 슈만의 첼로 협주곡을 슈만 자신이 같은 a단조로 편곡한 바이올린 협주곡 버전으로 선보였다. 슈만 만년의 걸작인 첼로 협주곡은 3개의 악장이 씬 없이 하나로 이어지면서 극적으로 변하는 감정선을 따라 삶의 희로애락을 원근감 있게 표현해야 하는 작품이다. 노년의 거장은 마치 자신의 악기를 통해 다른 사람의 말을 전하는 것처럼, 극도로 조심스러운 어조로 조심스레 이야기를 전했다. 상대가 내 이야기에 얼마나 귀를 기울이고 있는지 오케스트라와 관중, 화자인 연주자 자신이 삼각으로 구도를 이루며 고도의 밸런스 게임을 하고 있었다.

옥타브 사이를 오가며 이어지는 동형 진행에서 불필요한 힘을 빼고 거의 속삭이듯 연주하는 장면은 일종의 매력적 화법으로 이해할 수 있겠다. 자연스레 넘어온 2악장에서도 크레머의 지판은 심금을 울리는 흐느낌도 없이 유유히 흐르며 첼로 수석과의 이중주를 만들었다. 어디에도 감정을 과다투여하지 않지만 더블스톱으로 만들어내는 거장의 운지는 가히 품격이라 할만하다. ‘매우 빠르게’로 점철된 3악장의 생기는 바이올린을 만나 한결 날렵하고 화사함을 더했다. 공교롭게도 이날 불과 몇 시간 전 예술의전당에서는 교향악축제 협연에 나선 젊은 첼리스트가 동곡을 원래의 악기로 연주했고, 이 둘의 구도를 눈여겨본 몇몇의 애호가는 두 연주자의 스타일을 비교하며 재미를 찾았을지도 모르겠다. 폭넓게 펼친 일관된 구도 안에서, 생의 굴곡을 슈만이라는 하나의 화폭에 담아내는 구도자의 노래. 그 노래는 멀어진 흐릿한 배경이었고, 때로는 너무도 선명한 눈앞의 사물이었다. 소리의 풍경화를 마치며 노년의 바이올리니스트는 혹 이렇게 말했을까. 지나 보니 그저 한 폭의 풍경화였다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라고.

글 | 김은중(음악 칼럼니스트)



CONCERT INFORMATION

KBS교향악단 제791회 정기연주회  
6월 24일(토) 20:00 롯데콘서트홀

지휘 | 요엘 레비  
바이올린 | 기돈 크레머





## 대한민국 교향악단의 자존심 KBS교향악단!

### 대한민국 클래식 음악을 선도하는 국가대표 교향악단

KBS교향악단은 1956년 창단되어 수준 높은 연주를 통해 대한민국 클래식 음악 발전을 선도해 왔다. 임원식 초대 상임지휘자를 시작으로 홍연택, 원경수, 오토마 마가, 정명훈, 드미트리 키타옌코, 요엘 레비 등 세계 최정상 지휘자들이 KBS교향악단을 이끌었고, 2022년 제9대 음악감독으로 피에타리 잉키넨 지휘자가 취임하며 한국을 넘어 세계 정상의 교향악단으로 도약을 준비하고 있다. 2012년에는 전문예술경영체제를 갖춘 재단법인으로 새롭게 출범하며 명실상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교향악단으로 자리매김하였다.

### 언제 어디서나 감동을 전하는 국민의 교향악단

KBS교향악단은 교향악부터 실내악에 이르기까지 다채로운 레퍼토리를 통해 관객에게 감동을 선사하고 있다. 수준 높은 연주를 들려주는 정기연주회를 비롯하여 시즌 및 주제별로 관객과 소통하는 초청, 기획연주회 그리고 클래식 음악을 쉽게 접할 수 없는 문화 소외계층을 위한 찾아가는 음악회까지 매년 100회 이상의 공연으로 10만 명이 넘는 관객에게 고품격 음악의 향유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또 공연 현장에서 함께할 수 없는 관객을 위해 KBS교향악단의 연주는 KBS TV와 라디오를 통해 전국에 중계함으로써 국민의 교향악단으로서 소임을 다하고 있다.

### K-클래식의 새 역사를 만들어 가는 콘텐츠 허브 교향악단

2018년 세계적인 클래식 음반 레이블인 '도이치 그라모폰(DG)'에서 말러 <교향곡 제9번> 실황음반을 발매하며 세계의 주목을 받았고, 이어 체코슬로바키아 건국 100주년 기념연주회, 2019년 한국 폴란드 수교 30주년 기념 순회공연과 오스트리아 빈 무지크페어아인 황금홀 특별연주회를 연이어 개최하며 대한민국 클래식 음악의 위상을 세계에 알렸다. 코로나 시대에도 KBS의 온라인 4채널을 모두 동원한 무관중 공연으로 2만 3천여 명 실시간 관람 기록을 세우고, 클래식 음악 아카이브 '디지털 K-Hall'을 오픈하며 고품격 음악콘텐츠의 무료 제공 기틀을 마련하는 등 클래식 음악의 디지털 콘텐츠 허브로서 새 역사를 만들어 가고 있다. KBS교향악단은 언제나 차별화된 연주와 창의적인 기획을 통해 국민과 공감하는 대한민국 국가대표 클래식 문화브랜드로 함께 할 것이다.



**사장**  
음악감독 겸 상임지휘자

한창록  
피에타리 잉키넨

**단원**

제1바이올린

약장\* 부약장\*\* 수석\* 부수석\*\*  
최병호\*\* 반선경\* 유신혜\*\*

제2바이올린

김혜은 황미령 김희진 권혁진 최혜진 강내윤 오지는 유지인 이소윤 설현선 김지현 김선우 선승미  
권민지\* 임정연\*\* 안지현\*\* 유주현 김진아 이윤경 박소현 박정원 김은근 이조해 황선민 박서현 최여은

비올라

진덕\* 한넬리\*\* 박세란 최진미 김지우 유민형 임나유 석지영 박새롬 변은혜 유우정 이유현

첼로

김우진\* 윤여훈\*\* 양윤정 김현정 김소영 정세은 장현경 김신애 유소향

더블베이스

이창형\* 김남균\*\* 안수현\*\* 이도용 양현주 유주연 장한별 강창대 곽민재

플루트

김아란\* 김태경\*\* 이철호 전서영

오보에

이지민\* 김종아\*\* 윤혜원 조성호

클라리넷

박진오\* 손한요\*\* 이승훈\*\* 박한 양수현

바순

박준태\* 고주환\*\* 김소연 정순민

호른

정희찬 조세영 조현우 김현준

트럼펫

남관모\* 김주원\*\* 정용균 김승헌

트롬본

이윤호\*\* 윤지연

베이스트롬본

정다운

튜바

Norito Usui

팀파니

이원석\*

타악기

장세나 Matthew Ernster 임예지

하프

김서원

**객원단원**

**약장**

Florin Iliescu \* (프랑크푸르트 방송 교향악단 제1약장)

**플루트**

유지홍 +

**오보에**

이광일 + +

**바순**

이준철 + +

**호른**

Mischa Greull +

**트롬본**

David Bremner +

**사무국**

사무국장 신승원

대외협력실 실장 김원재

공연기획팀  
(공연지원파트)

팀장 손유리 차장 이한신 김지민 과장 성채은 대리 전현정 사원 손명조 인턴 장수빈  
(악기담당) 단원 유재식 (악보담당) 과장 장동인

공연사업팀

팀장 강길호 대리 이미래 주임 김민중 사원 임상아 서영재 이부윤 인턴 김문정

경영관리팀

팀장 손대승 차장 유정의 유연철 과장 박연선 주임 박태균 사원 정태양



# 2024 KBS Symphony Orchestra Conducting Masterclass for Youth

## Eligibility

born in and after 2005

## Application Deadline

August 25th 2023 7 PM

## Required to submit

Online application form, Performance Video Conducting Video

## Repertoire for Videos

Performing instrumental music  
by applicants' own choice (limit of 10 minutes)  
Conducting L. v. Beethoven Symphony  
No.5 in c minor the 1st mv.

## 지원자격

2005년 이후 출생자 - 자세한 자격은 공고문 참조

## 접수기간

2023.08.25. 오후 5시까지

## 제출서류

온라인 지원서, 악기 연주 영상 및 지휘 영상

## 영상과제곡

기악 자유곡 연주(10분 이내)  
지휘 베토벤 교향곡 제5번 c단조 중 제1악장

## 합격자특전

피에타리 잉카넨 음악감독 개인/그룹 지도 외

# 2024 KBS교향악단 청소년 지휘 마스터클래스





언제, 어디서나 만나는 KBS교향악단



[www.kbssymphony.org](http://www.kbssymphony.org)



[@kbssymphonyorchestra](https://www.instagram.com/kbssymphonyorchestra)



[youtube.com/kbssymphonyorchestra](https://www.youtube.com/kbssymphonyorchestra)KBS교향악단



[facebook.com/kbssymphony](https://www.facebook.com/kbssymphony)



플러스친구 KBS교향악단(혹은 'kbssforever')